

# 사이버 산업보안 강화 방안 모색

### 전북중기청, 기술보호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보안소프트웨어 제공사업 신청 절차 공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12일 전북중기청에서 12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차 전북 중소기업 기술보호(산업보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유관기관협의회는 2018년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유출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전북중기청,

국정원, 경찰청 등 12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발족한 회의로, 그 동안은 주로 오프라인 보안 및 피해구제 중심으로 협업을 진행해 왔다. 반면, 이번 회의는 4차 산업혁명 솔루션인 사이버 보안 지원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침해 사례를 토대로 경찰청 수사기법도 공유했다.

이는 사이버 보안을 갖추기에는 인적·물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취약한 보안 관리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마련된 자리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보안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 시대의 사이버 해법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기업 신청률이

급증하는 보안시스템 구축 및 보안 소프트웨어 제공사업의 신청방법과 절차도 공유했다. 김광재 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기관 간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사이버 보안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이 반영하는 것이 지역 산업보안 생태계를 살리는 한 방법이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NH농협은행, 오픈뱅킹 계좌 충전캐시백 이벤트

### 내달 27일까지 7주간 진행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농협은행이 NH오픈뱅킹에서 계좌를 충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총 9억원 가량의 캐시백하는 이벤트를 12월 27일까지 7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충전캐시백 이벤트는 매주 1등(1명) 100만원, 2등(10명) 100만원, 3등(5000명) 1만원, 4등(1만명) 5000원 등 총 1만5077명에게 약 9억원 가량을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이벤트는 NH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올원뱅크의 NH오픈뱅킹 서비스에서 타은행 계좌를 출금계좌로 등록하고 본인의 농협 계좌에 충전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출금계좌 1좌당 1회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금계좌를 여러건 등록하고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많은 응모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이벤트와 더불어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선해 고객편의를 높였다. NH스마트뱅킹 메인화면에서 다른 은행 계좌정보를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UI를 개선했고,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적용해 타은행 계좌를 한 번에 불러와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타은행 계좌 등록 시 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가능했으나 ARS인증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고, 기존 NH클로벨&스피드뱅킹을 NH스마트뱅킹과 통합해 NH스마트뱅킹을 9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NH스마트뱅킹나 올원뱅크의 이벤트 페이지와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한-UAE 농업 R&D 협력강화 국제심포지엄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UAE 농업 R&D 협력강화 국제심포지엄'에서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Abdulla Saif Al Nuaimi 주한 UAE 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농업 전문가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양국의 농업연구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연구사업을 중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 도내 중기 활성화 지역경제 성장 견인

### 중기중앙회, 송하진 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테이트호텔에서 송하진 전복지사를 초청하여 중소기업인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다음 12일 밝혔다. 이번 전복도지사와의 간담회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마련됐으며,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성사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앙회 배조웅 부회장, 두안정 전북중소기업회장,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전북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도청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하며,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산수립 ▲전북권 거점형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 및 판로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확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지역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현안들이 건의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간담회 등 앞선 다섯 차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의 조속한 추진과,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 확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상향 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장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건협 전북도회 도 건설교통국과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12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이용민 국장)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현안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생활민적정액 확대 등 지원 가능한 사안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에서

## 피부 주름 개선 효과 최초 입증

### 식품연, 봉출 초음파 추출물로

생각과에 속하는 봉술의 뿌리줄기인 봉출의 초음파 추출물이 자외선에 의해 유도된 피부 주름의 개선에 효과가 있음이 세계최초로 확인됐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봉출 초음파 추출물이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주름의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최초로 입증하였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식품연(연) 가공공정연구원 송경모 박사 연구팀은 자외선을 조사한 마우스에 봉출 초음파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피부의 주름 형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봉출(蓬朮)은 생각과에 속하는 봉술의 뿌리줄기로서 이철 또는 봉아출이라고 불린다. 생각과에 속하며 모양 또한 생강을 닮은 형태이나, 매우 단단하며 뿌리에 기반한 약재 중에서 경도가 제일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봉출을 이용한 약재의 다양한 효능이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를 이용한 피부노화 억제 효능의 입증은 식품연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봉출 초음파 추출물의

피부 주름 개선효과를 인간 피부 세포 및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구체적으로 인간각질형성세포(HaCaT)에 자외선(UV-B)을 조사하여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효소와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발현을 증가시킨 후, 두 효소의 발현량이 봉출 초음파 추출물에 의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러한 억제 효과는 MAPK 신호전달경로를 통해 조절되는 것을 확인했다. 생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도 염증 반응 유도효소와 콜라겐 분해 효소의 발현이 억제되었으며, 피부 주름 형성 또한 동반 감소했다. 주 3회 아세톤에 봉출 초음파 추출물 피부에 도포하고, 1시간 후 자외선을 등 부위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13주간 실험을 진행한 결과, 봉출 초음파 추출물 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해 주름의 굵기와 깊이가 개선됐다. 김경태 식품연 전략기술연구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봉출 초음파 추출물의 피부 광노화로 인한 주름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그 기전을 최초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인삼 향산화 성분 향상 기술 개발

### 농진청, "뜨거운 바람에 말린 뒤 볶으면 폴리페놀 함량 4배 증가"

인삼을 뜨거운 바람에 말린 뒤 볶으면 향산화 효과, 항암·항염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 함량이 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 보호, 항종양 작용,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을 하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인삼의 향산화 성분을 최고 4배까지 늘리고 특유의 향은 없애 소비자 기호도를 높이는 가공 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삼은 75% 이상 수분으로 수확 후에는 부패하기 쉬워 오래 보관하기 어렵다. 가공 제품은 주로 가루(분말) 형태로 시판되고 있으며, 대부분 건조 과정에서 거친 백삼 분말이나 찌서 말린 홍삼 분말이어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농촌진흥청은 인삼 분말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품질은 높이기 위해 4년근 인삼을 뜨거운 바람에 말린(열풍건조) 뒤 볶아 유용 성분이 가장 많은 조건을 연구했다. 그 결과, 140도(°C) 이상에서 일정 시간 볶았을 때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공 전보다 약 4배, 인삼의 사포닌을 침하는 진세노사이드인

Rh1 함량은 3.5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산화(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 항암·항염 효과가 있다. 진세노사이드 Rh1은 간 보호, 항종양 작용,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 등을 한다. 이 가공법은 볶으면서 인삼 특유의 향이 사라져 기존 백삼 분말보다 향에 대한 소비자 기호도가 1.8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에 관한 2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관련 업체와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향산화 성분이 높은 인삼 분말이나 과자 등 다양한 품목으로 만들 수 있어 소비 촉진과 가공 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동운 인삼과장은 "이번에 이용한 가공법은 커피 등에 주로 쓰이는 방법으로 인삼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며 "활용도가 적었던 인삼 분말이 더욱 널리 쓰이고, 제한적이었던 인삼 소비도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http://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mailto:jjvs@hanmail.net)